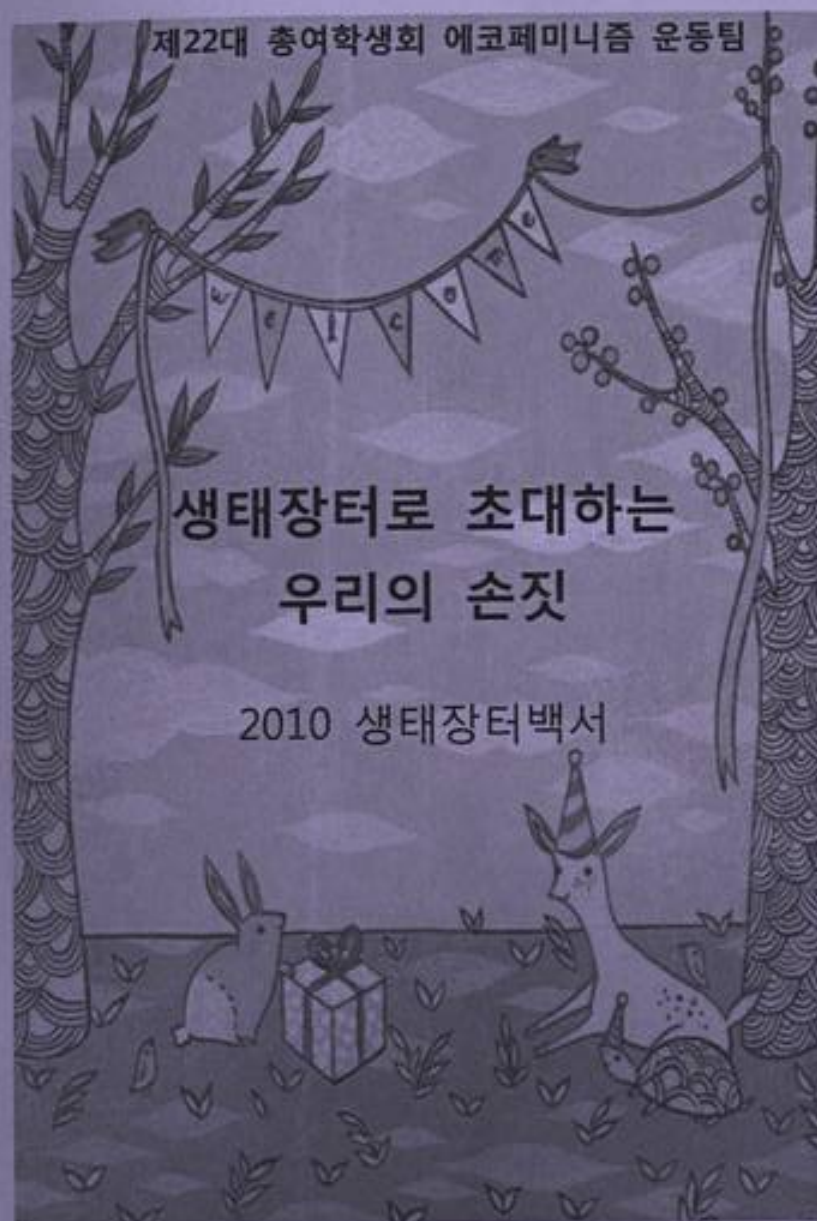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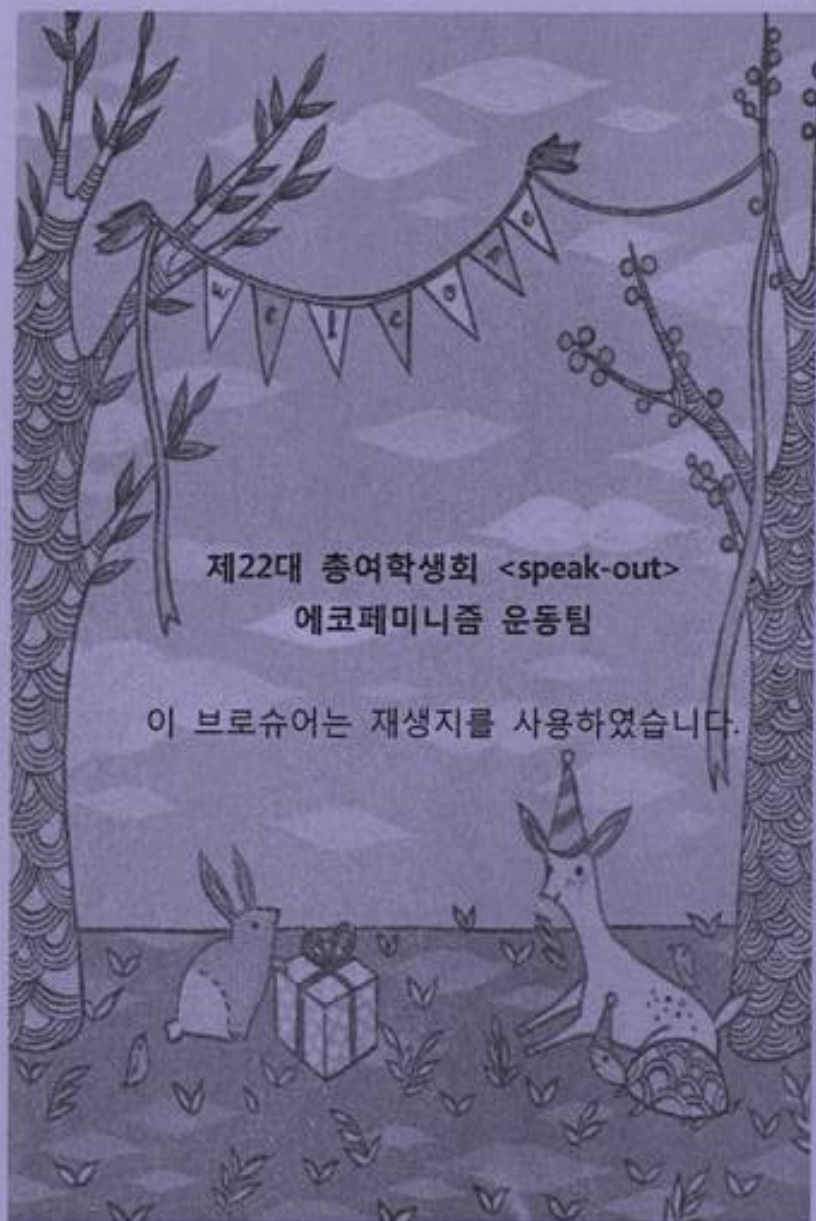




Part I .2009년 에코페미니즘 팀 이야기

‘녹색성장이
싫어서
슈렉의 늪을
지키는 카페’
백서

<우리의 빠르기로 사고하고 우리 몸이 숨 쉬는 곳,
에코페미니즘운동팀>

요즘 나, 좀 힘들어

나는 작년에 여행을 하면서 무언가 다른 걸 좀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다. 슬리퍼를 끌고 바다로 기어들어가 꿈처럼 불타는 하늘을 내 눈으로 직접 바라보았을 때, 내가 너무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게 아닐까, 라고 한숨을 쉬며 편지를 띄워 보냈던 것 같다. 카메라 프레임 바깥에서 빛과 바람을 가두는 입장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 숨쉬고 싶었다. 처음으로 몽상이 아니라 피와 살로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게 단절된 도시에서 내가 안전하고 차분하고 진지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거의 없다. 주로 이불 속이나 달리는 버스 안에서나 쉬거나 생각을 할 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정신 없이 달아나며 허겁지겁 빵을 삼키는 좀머씨처럼 혹은 중력 부작용으로 내장이 짓눌려 죽어가는 저중력권의 인간처럼 불행하다. 난 어딘가에 좀 걸터앉아서 생각을 하고 싶었다. 콘크리트는 땅을 덮으면서 동시에 마음을 덮는다. 콘크리트 지하를 지배하는 건 뿌리일까, 파이프일까? 아무것도 세울 수 없는 영토가 남아있다는 것은 참 다행이다. 하늘에는 철근을 박을 수 없겠지. 해저와 지구 중심의 정복 불가능성과 예측 불가능성, 사라지지 않은 비정형의 거대한 공간으로 사라지고 싶다. 그렇지만 그 곳은 공기가 희박해서 숨 쉴 수 없겠지…….

어? 이런 거 좋은데

화장실에서 발견한 한 줄 글귀를 따라 찾아간 <에코페미니즘운동

팀>은 이런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었다. 지난 3월, 그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났고 우리는 왜 여기에 와 있는지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방부처리된 나머지 썩지 않는 통을 누는지 떠올렸고 비웃었다. 그렇게 자기 일상 속에서 스치듯 사라져버리는 고민들을 공들여 나누고 실천으로 바꾸어보기로 했다.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다고 여겼고 유쾌해졌다.

에코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근대과학과 가부장주의로 세뇌 당했고, 분열하고 환원시키는 데 너무 익숙하다는 섬뜩한 깨달음을 얻었다. 거기다 주로 당하는 입장이기도 했다. 그 모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백이 흘러나왔다.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의 뿌리가 썩었다는 게 느껴졌다. 과학, 기술, 생명과 환경의 담론은 끊임없는 파괴와 소멸을 장려하고 위장했다. “내가 아닌 너를 타자화하고, 배제하고, 착취하고, 억압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자!” 그럼 너, 는 누구였던걸까? 인간 대 비인간, 인간 대 자연, 여성, 농민, 부족민…… “그러니 전쟁을 일으키고, 자연을 개발하고,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자!” 이런 커다랗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목소리 속에서 어릴 적에 가졌던 생명과 존재의 고유성과 연결성에 대한 의식은 제거 당한다.

우리 내부에서 울리고 있는 작은 종, 깡통한 초의 심지를 태우는 불꽃 같은 것, 모호하지만 핵심적인 것을 더 이상 외면하고 싶진 않다. 이제까지 익숙하고 당연했던 사고방식과 행동패턴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지식과 신념체계를 쌓을 수 있을 때까지, 내 삶이 내가 행복하도록 바뀔 때까지 말이다. 에코페미니즘은 그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고, 그 의미를 해설하고, 소통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을 함께 끈질기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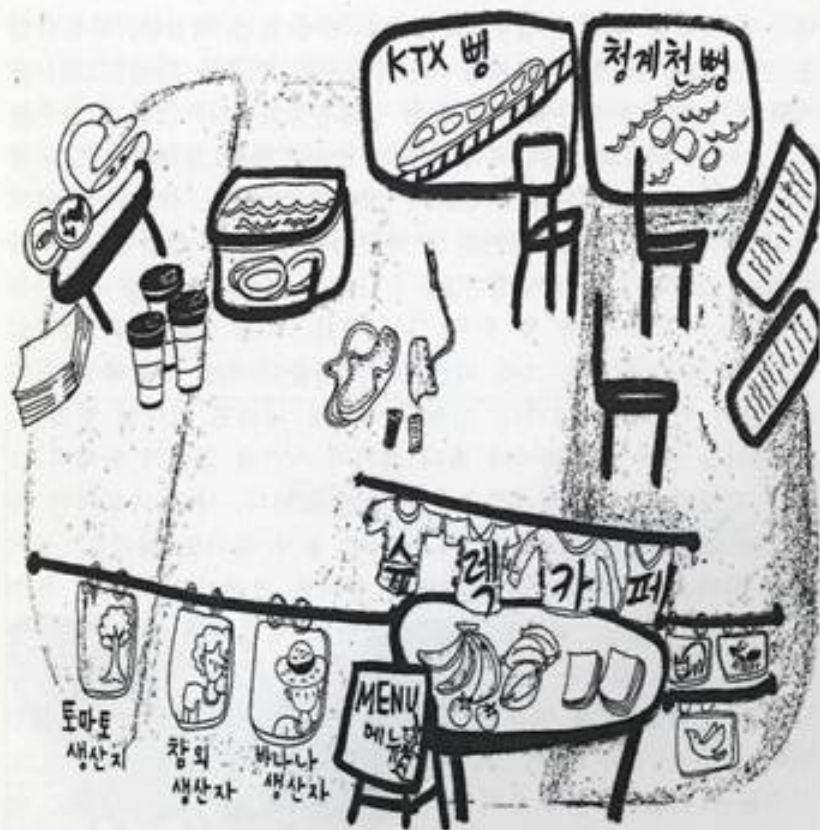
아울러 학내의 생태주의, 여성주의, 생태여성주의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공동체들과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생태적인 학생 자치활동

(MT, 뽕놀이, 대동제 등)을 건의하고, 생태적인 생협을 만들어나가고, 분리수거등과 관련한 학내 노동문제를 생각해 보는 팀들과 접촉해 보기. 송도에서 죽어가는 물새들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비생태적인 캠퍼스에서는 공부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을까? 나 자신의 반생태적인 일상을 반성하는 생태적인 대학 생활 매뉴얼, 채식 레시피 만들기는 어떨까? 이명박정권에서 대두되는 담론과 정책들의 허구성을 뒤집어야 하지 않을까? 여성의 몸에 대한 물이해 덩어리, 해롭기 그지없는 화장품과 생리대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넌 요즘 뭐하니?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고, 도시락을 싸고, 뽕발을 가꾸고 있어.

오호, 이거 재미있을 거 같네

그러던 참에 <대동제 로컬푸드 공동구매>와 더불어, 대동제 천막 하나를 떼어차서 일시적이지만 전복적인 공간과 문화를 꾸며보기로 했다. 구호는 '보다 느리게, 보다 낮게, 보다 부드럽게'! 경쟁과 무한성장의 기치 올림픽에 '환경'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건지, 입시지옥과 '환경교육'이 공존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비둘개 보기라고나 할까. 이름은 '녹색성장 싫어서, 슈렉의 눈을 지키는 카페'! 이제는 어디에나 끌어다 붙이는 녹색성장, 현재 가장 반생태적인 핵심 담론 '녹색성장'을 까발려보자. 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었던 슈렉의 집으로 어느 날 문득 쳐들어오는, 아니 도망쳐오는 조그만 동화 속 주인공들을 떠올리며 지었음. 천막 밑에 까는 스티로폼부터 컵과 접시에 이르기까지 일회용품은 전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익숙하고 당연했던 친절과 빠른 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버리길. 자기가 직접 해 먹는 거 좋잖아?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대신 얘기 한마디 더 나누고 글 한 편 더 읽고 가는 거 어때? 유기농 채소와 제철 과일, 팔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팔고

싶은 만큼 팔고, 잘 팔리는 게 아니라 팔고 싶은 걸 판다. 이 참외는 껍질 채로 먹는 거 몰랐죠? 오후 3시부터는 대안생리대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 된다는 거. 지금 여기서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부터 해보고 싶었고, 북적이고 소란스럽고 소모로 점철된 대동제 한 복판에서 조금 다른 것, 이런 건 어떨까? 라고 말 뿐 아니라 행동으로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어서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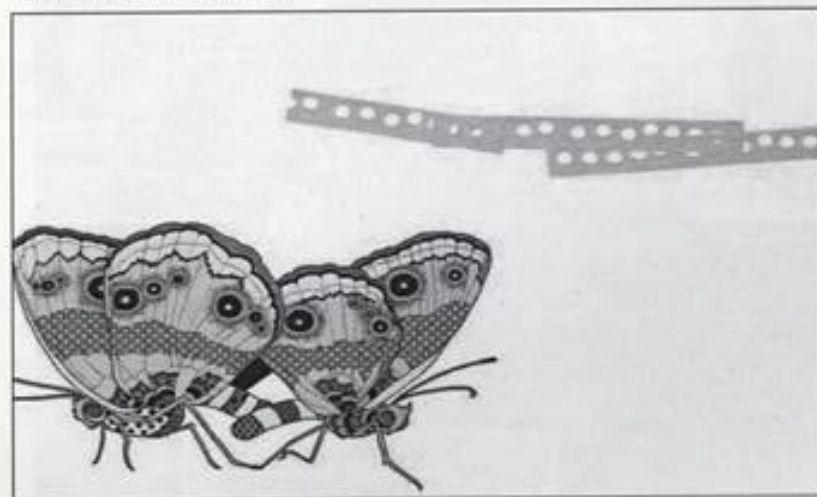
<그리고 쓰레기만 남았다-대동제 바라보기>

질은 녹색으로 백양로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물들어 가는 철이 되면 대동제가 찾아옵니다. 대동제가 되면 백양로에는 뽁뽁하게 파란색 주점 천막들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점들은 엄청난 흑자와 그에 따른 호화 뒤풀이를 최선의 기조로 삼습니다. 천막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쓰레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천막을 주문하면서 같이 주문하게 되는 스티로폼, 책상을 대신할 박스, 대동제 하루를 위해 가끔은 코팅까지 되어 있는 메뉴판, 주문확인을 위한 영수증 종이, 기본안주와 주문받은 안주를 담을 그릇, 숟가락과 젓가락과 소주잔까지 모두 일회용품입니다! 그리고 안주를 다들으면서 나오는 (약간의?) 음식물 쓰레기까지! 이렇게 한 주점이 만들어 낸 쓰레기가 백양로에 쌓이고 쌓이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했더라도 남겨진 쓰레기들은 10톤에 가깝습니다.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쌓일까요?

물론 '엄청난 흑자와 그에 따른 호화 뒤풀이'라는 최선의 기조에 충실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엄청난 흑자를 내려면 최대한 빨리 빨리 많이 많이 손님을 받아야 하니 설거지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그릇과 수저와 컵은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학교라는 특성 상 설거지를 하기에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기도 하지요. 설거지를 하려고 해도 화장실 세면대가 음식물 쓰레기로 막혀서 홍수가 나기도 하고요. 임시로 만든 주점이니 설거지를 한 그릇을 말릴 장소 같은 것들은 준비하기도 힘들지요. 흑자를 내야 하니 손님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많이 구매하기를 기대하게 되어 500원에 때어온 소주는 어느새 4000원이라고 메뉴판에 쓰여 있고, 안주들은 다들 만원이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사 먹는 사람도 약간의 쓰린 속을 가지고 주문을 하고, 혹은 주문 받는 사람에게 떠

넘기게 되고는 하지요.

손님들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동안 주점에서 요리를 만들고 주문을 받고 자리를 치우고 했던 사람들은 점점 피곤해집니다. 흑자만 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돈 계산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흑자는 났는지 재정상황을 체크하면서 겨우 겨우 버티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주점이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고,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치울 것은 산더미입니다. 주점 열기 전 햇빛이 쨍쨍할 때에 했던 부대 행사를 하느라 만든 소품들도 이제는 치우기 힘든 짐입니다. 하루 뽁뽁하게 벌어서 나중에 흥청망청 놀자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고되어 다음 날에는 몸이 축나 있습니다. 만약 힘겹게 대동제를 마치고 나서 다행히도 흑자가 났다면, 그 돈으로 호화 MT를 떠난다면, 또 다른 비 생태적인 삶이 시작되겠죠? MT나 대동제나 쓰레기 만들어 내는 건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아요. 다시 우리가 만들어낸 쓰레기는 긴긴 시간동안 썩지 않을 테고, 긴긴 시간 뒤에 땅 속에 묻힌 우리들조차 썩지 않을지도 몰라요.



<홍보>

팀원들이 마음을 모아 만든 장터이니만큼 꼭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성어린 초대장을 했습니다. 자연을 덜 파괴하기 위한 재생지에 갖가지 색의 연필로 부르는 말을 쓰고 에코페미니즘운동팀원들이 좋아하는 새와 나뭇잎이 새겨진 도장을 찍어서 손에서 손으로 건넸어요. 이 장터의 목적을 설명하고 어떤 것들이 준비되었는지 자랑하고 그 사람과 같이 보내고 싶은 시간을 강조해서 썼답니다♥ 무작정 돈을 벌기 위해 벌려진 장터가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과 반갑게 시간을 가지고 평소에 보던 사람이라도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감과 소통이 피어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지요. 히히 하하



<생태장터에서 판매한 제철과일/야채>

2009년 생태장터 '녹색성장이 싫어서 슈렉의 눈을 지키는 까페'에서 구매해서 판매한 작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참외 (참살이공동체 경북 성주군)

토마토 (충남 아산시 영인면)

양상추, 들나물 (팔당생명살림영농조합)

오이 (아산 한모듬작목반)

대동제 장터가 한창인 5월에 나는 제철 작물 중 다루기 쉬운 작물들과 팀원들이 좋아하는 작물들로 골라서 준비한 것입니다. 이 지면에서는 팔호 안에 생산지나 생산자를 간략하게 써서 넣었습니다만 생태장터에서는 판매 데스크 앞에 생산하신 분들의 이름과 사진, 생산하신 방법, 그분들이 이용객에게 하고픈 말들을 크게 인쇄해서 붙였었지요. 이렇게 해서 참외나 토마토주스, 샐러드를 사 먹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먹거리가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생산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었는지 알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흔히들 장터에서 필요한 작물, 식품들을 근처 대형마트에서 구입합니다. 또한 생산지나 생산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거의 찾아볼 수 없지요. 기껏해야 국내산/수입산 인지 알 수 있을 정도지요. 솔직히 장터같이 단기간에 엄청난 양을 사용하고 끝나는 소비일수록, 친구들과 재밌게 이익을 많이 내자는 목적일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닥 중요하게 생각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 멀리 필리핀에서 거대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엄청난 농약을 마시며 일하는 착취당하는 농부의 손에서 온 바나나인지, 엄청난 공해발생과 연료낭비를 발생시키며 장거리이동을 한 농작물인지, 대규모 유통업의 횡포와 독과점 속에 제대로 가격이 지불되지 않은 과일인지, 식품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무시하고 재배된 표준화된 상품작물은 아닌지 등 사실 우리는 일반 매장에서 그것을 알 기회도 없으며 알 필요성도 잘 느끼게 되질 않습니다.

내가 먹는 먹거리가 특정한 개인의 손으로 생산되어 온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수많은 유통과정과 유통경로로 익명성이 극대화된 먹거리에서 단순한 이윤외의 생태계와 지역농민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진 힘듭니다. 음식점이나 매장에서 작물가격과 생산자 사진과 이름이 있는 풍경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한 캠퍼스가 하루 이틀동안 소비하는 먹거리의 양은 어느 한 지역을 살릴 수 있고 대안적 생산-소비구조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터가 '연대'의 의미를 살리고 실천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가깝고, 제철에 나며, 생태계와 소비자를 고려하는 유기재배 생산자와 연계하여 장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농장식이 아닌 지역 소규모 농가를 지원할 수 있게 되도록 개인농이나 조합의 이름으로 생산된 것을 선택했습니다. 단기간이고 소규모인 장터의 한계로 직접연결은 무리여서 민우회생협을 통해 생산자에 대한 정보와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좀 더 많은 단위들이 고민하고 참여한다면 연세대 생활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직접 공동구매를 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ps. 껌질채 먹어본 참외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창한 햇

빛 아래 마시는 토마토즙은 어떻구요. 이렇게 하루종일 과일과 주스, 야채샐러드를 팔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토마토의 꼭지 한 움큼 뿐이었어요.



<4대강 정비사업 전반적인 정책과 청계천 KTX>

'녹색성장이 싫어서 슈렉의 눈을 지키는 카페'라는 이름처럼 이명박의 녹색성장 비판은 우리 생태 카페의 주요테마였다. 소수 강남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나 재벌 건설자본에 퍼주기 식의 투자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녹색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그 생태 파괴적 본질이 희석되거나 가려지기 일쑤였다. 유기농 샐러드와 과일을 느릿느릿 판매하면서 생태적인 일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고민했다면, 전시자보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비판하고 그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생태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 일상으로부터 시작하여 개발과 성장위주의 국민경제에 대한 비판,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초글과 자보를 통해 기존에 해왔던 청계천 사업, KTX 사업과 앞으로 계획된 4대강 정비사업과 기업식 영농추진 정책을 비판했다. 자료는 주로 비판 언론의 기사를 참고했는데, 깨끗하고 편리하며 심지어 생태적이기도 하다는 식으로 걸로 포장되고 홍보된 이미지와는 달리 수많은 생명의 존재들을 짓밟고 시멘트로 그 모든 생명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KTX 통과를 위해 만들어진 터널로 인해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는 지하수가 말라가고, 청계천 사업으로 인해 노점상들이 쫓겨나고 4대강 사업으로 수몰되는 농민들의 경작지가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동식물들이 사라지고 인간에게 전시적으로 보여지기 위해 생명이 마구잡이로 이용될 뿐인 것이다. 거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면서 망언을 쏟아내며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게 하는가를 이야기 하고자 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녹색성장에는 녹색이 없다' 기초글의 준비는 일반 자보의 줄글 형식을 채택하여 자보전시의 기초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딱딱하고 건조한 문어체가 아닌 마당극에서 만담을 하는 듯한 구어체로 작성되어 녹색성장 담론의 수사를 조롱하고 비꼬는 글이었는데 읽는 이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던 글이었다.

전시자보의 준비는 청계천과 KTX의 경우 허와 실을 시각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 그것들의 조감도를 붙이고 그 사진 위에 덮개를 붙여 정부나 이명박이 홍보하는 '뺨'을 보여주고 그 덮개를 열면 잔혹한 생태적인 파괴의 보고를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아이디어도 좋고 여러모로 잘 만들어진 자보였으나 카페에서 앉아서 샐러드를 먹는 이들은 손을 대지 않고 자보를 바라볼 뿐, 겹겹이 붙인 그 이미지를 벗겨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이들이 드물어 자보의 메시지를 많은 이에게 전달하지 못한 거 같아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다.

4대강 사업 비판 자보의 준비는 청계천과 KTX의 경우처럼 허와 실을 보여주고자 했으나 앞에서 덮개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형식과는 다르게 '4대강 사업 내부용 비밀 보고서'의 형식으로 평면에 요약적으로 허와 실을 비교하여 작성하고 4대강 사업의 본질이 크루즈 선이나 띄우는 레저단지를 만들고 부동산 경기와 건설경기를 띄우려는 것임을 말하고자 했다. 그리고 사업 조감도의 화려한 사진과 현재 파괴되지 않은 4대강 유역의 모습과 그곳에 사는 동식물의 사진을 비교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생태미학의 감수성을 느껴볼 수 있게 했다.

아쉬웠던 지점은 전시자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이들이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풀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급박하여 그러기 보다는 일단 준비하기로 맡은 사람 2인이 주도적으로 내용과 형식을 정하여 자보를 만들게 되었다. 준비를 맡았던 사람 중 1인으로서 여러모로 힘든 점도 많았는데, 자료를 찾고 쓸 내용을 고민하면서 여러모로 추상적이고 어슴프레했던 녹색성장의 실체를 더 잘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 또 그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하지만 역시 자보로만 부족되고 유인물에 신지는 못해서 힘들게 제작된 자보가 너무 단발성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나 라는 아쉬움도 있었다.



<장터에서 벌이는 바느질 잔치>

장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쯤, 우리는 둥그렇게 모여 앉아 실과 바늘을 집어 들었다. '깨끗하고 하얗고 감쪽같은' 일회용 생리대가 아닌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핸드메이드' 생리대를 만들기 위해서다. 도안을 본 따 오려낸 알록달록 천을 들고 바느질을 하면서 요즘 월경통이 심해졌다거나 월경을 안 한지 세 달이 넘었다는 이야기, 산부인과에 다녀온 경험 등을 나눈다. 평화롭고 여유로운 그 시간이 너무도 좋다. 온전히 내 몸을 생각하고 내 몸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 다음엔 월경 팔찌를 함께 만들어보고 싶다!

- 준비물: 도안(bloodsisters.or.kr), 천, 실, 바늘, 똑딱이 단추, 가위, 펜

- 걸리는 시간: 1시간이면 떡을 만들고도 남음^^

- 난이도: ★★★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음



<재생지 버튼 기념품>

• 장터에서 기념품의 의미

생태장터로 소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에 더해 이런 의미를 다시 떠올려 볼 수 있는 기념품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버튼을 기념품으로 나눠주기로 했다. 특별히 무얼 사거나 먹지 않아도 장터내의 자보 글과 분위기를 천천히 즐기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기념품 버튼을 방문객이 직접 만들면서 즐길 수 있게 하였다. 재생지에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나 글을 쓰거나 색색의 새 모양 나무모양 도장을 찍을 수 있게 준비하였다. 버튼 찍는 기계는 3만원 대에 작은 것을 구입할 수 있었다. 장터의 기조나 의미를 버튼에 담아 가방이나 필통에 달고 다닌다면 일상에서 가끔 떠올려 볼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다.

• 버튼 배경지로 재생지를 쓰는 의미

버튼의 배경지와 리플렛에 쓸 종이는 양천구에 있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재생지를 구입해 사용하였다. 재생지를 쓰는 것이 엄청난 생태계파괴와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일상에서 실천하지는 못했던 일이었다. 보통 가까운 매장의 대형기업의 새 복사지를 더 접하기 쉽기 때문일 것이다. 직접 재생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보니 막연히 재생지는 비싸고 질이 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허무해졌다. 학생으로서 일상에서 학교가 제공하는 복사지와 주변 매장의 새 종이들만 접하게 되니까 재생지를 사용하는 것은 엄청 비싸고 힘들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만연해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캠퍼스 안에서 매일 산처럼 사용되고 버려지는 종이들이 떠오르면서, 학교에 재생지를 쓰는 복사기나 인쇄기가 생기고 주변 매장에서 재생지도 많이 접할 수 있게 된다면 캠퍼스라는 단위안의 엄청난 낭비를 줄이고 가치 있는 활

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거기에 더하여 노동에서 특히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생산품을 소비하는 것은 장애인의 노동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 같아 장애인생산품의 재생지를 구매했었다. 장터의 소비에 여러 가지 고민과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서 좋았던 지점이었다.



<여성 민우회 생협/카페 티모르와 함께했던 것>

슈렉 카페는 먹거리에 관심이 많아서, 로컬푸드 외에도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우리는 학교에서 매일 커피를 사마시지만, 막상 원두 생산자에게는 쥐꼬리만큼만 그 댓가가 주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먹는 먹거리를 통해 사람과 자연을 착취하지 않는 관계를 일상적으로 만들어내는 대안적 경제 공동체인 생활협동조합이 존재한다는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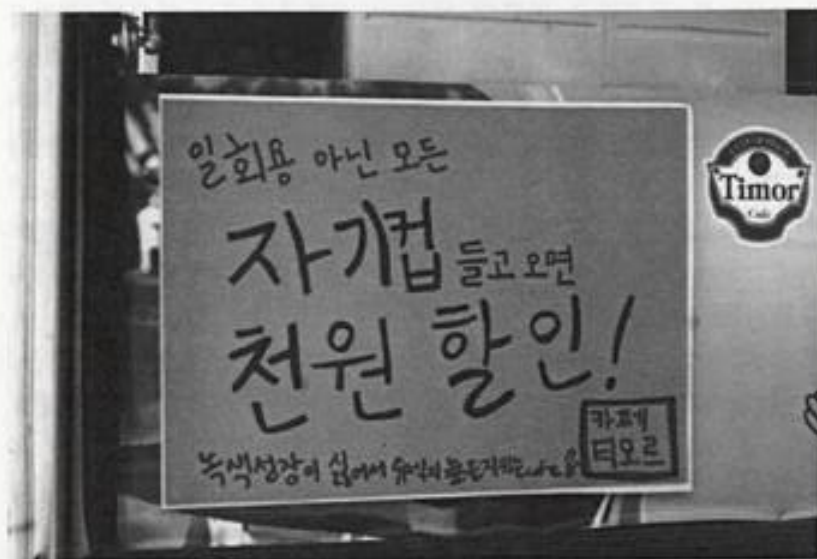
그래서 첫째, 공정무역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 티모르의 커피차를 초대했습니다. 카페 티모르는 한국YMCA에서 공정무역 운동의 일환으로, 동티모르의 커피농가를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활동과 함께 한국에 커피콩을 수입하여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이곳에 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연락하면서 슈렉카페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대동제 기간 이동식 커피차를 초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탁드렸던 것 두 가지는 학내에 공정무역 커피가 많이 알려져있지 않으므로 공정무역에 관한 홍보물을 전시해주십사하는 것과 생협 카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만큼 일회용이 아닌 자기 컵을 가져오면 가격을 할인해주십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할인된 가격은 카페 운영비의 일부로 처리하여 행사가 마친 후에 슈렉 카페에서 카페 티모르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전에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이러한 내용과 판매할 커피의 종류와 가격, 판매 시간대와 장소를 조율하고 슈렉카페에서 발전기와 장소 대여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이동식 커피차의 설치를 함께하고, 서로 인사한 뒤 때때로 카페 티모르에서 슈렉카페를 둘러보시기도 하였고 슈렉카페팀은 카페 티모르에 유기농 토마토 주스를 가져다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이하 민우회 생협)에서 로컬푸드를 공급받은 것뿐만 아니라, 슈렉카페에서 민우회 생협을 홍보하며 유기농 주스를 판매하는 행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민우회 생협에 슈렉카페의 뜻을 담은 기획서와를 전달하고 민우회 생협 사무실을 방문하여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과정에서 슈렉카페 옆에서 민우회 생협이 간이장터 겸 캠페인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그 뒤로 메일과 전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팔기로 하였는지, 공간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를 공유하였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내 몸과 가까워서 좋은 것들 - 로컬푸드 장터 : 리얼 100% 주스 체험>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 친환경 감귤주스 100개와 사과주스 100개, 그리고 친환경 연지 투명색(4800원) 30개를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첫눈 가루분을 체험하는 코너를 준비하여 이를 생산하는 자연의벗과 산돌여성공동체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통해 수입산 유기농 주스 및 제품(대학가를 비롯한 고급 음식점,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는 수입산 유기농에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멀리서 오는 유기농 제품보다는 가까운 곳에 있는 진짜 유기농을 이용하자.), 가장 자연에 가까운 화장품(화장품은 본디 피지와 땀을 대신해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리고, 자연에 가까운 성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생활 가까이에 두고 이용하면 좋은 생협(대학생들에게서 아직 알려져있지 않은 생협에 대해서 소개합니다.)와 같은 내용을 준비하여 우드락에 전시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슈렉카페가 끝난 후에는 여성운동과 생협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기 위해 에코페미니즘 팀원들과 여성민우회 생협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원래 장터 전에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으나 시간이 맞지 않아 장터이후로 미루게 되었는데, 간담회에서 얘기하고 싶은 꼭지를 뽑아서(여성운동과 생협운동의 접점 등) 함께

자유로이 얘기를 하고 재미있게 찢풀이도 했어요 ^^



PartⅡ. 2010년 에코페미니즘 팀 이야기

생태적인 삶에 한 발짝 다가가고픈 공동체를 위한 제안

<박세계 가자! 왜 이런 제안을 하는가!!>

1. 우리 스스로가 우리공간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학생자치행사

학교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생활공간이다. 특히 OT/새터, MT, 대동제와 같은 학생자치행사들은 생활공간을 학생 스스로가 만들어어나가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학생자치행사를 통해 주체적으로 다양한 사람, 다양한 지역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소비'는 관계 맺는 방식 중 주요한 하나이다. 대동제 장터만 보아도 장터를 위해 소비하는 계란, 일회용 접시나 젓가락, 종이컵 등은 무수한 관계를 통해 만들어 진 것이다. 닭과 공장식 농장과의 관계, 공장 노동자와 자본가와의 관계, 중간유통업자와 대형 할인 매장과 최종 소비자의 관계 등등. 그런 만큼 우리는 과연 어떤 소비를 하고 있고 그 소비가 이 사회에, 즉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를 질문하는 것은 우리의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1. 학생자치행사의 비생태적 이면들

우리의 엄청난 소비 뒤에는 우리의 엄청난 쓰레기가 따라온다. 매년 대동제가 끝나면 수십톤의 쓰레기들이 백양로에 쌓인다. 수많은 일회용 식기들은 평균적으로 썩는데 20년이 걸리고 만들어내는 데도 많은 에너지와 자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그 에너지와 자원은 일회용으로 쓰이고 버려진다. 또한 생수는 자본논리에 따른 기업의 물 사유화로 인한 결과물이다. 기업에서 만드는 생수는 대부분 농촌의 지하수를 끌어올린 물을 페트병에 채워 파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어려워진다. 실제로, 밀양시 감물리에선 (주)밀양얼음골샘물이 생수공장 건립을

위해 물을 뽑아 올리자 지하수 수위가 80미터나 줄어들었다. 결과 농업용수와 식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었다. 또한 생수를 담기위한 페트병을 만들기 위해 무수한 석유 에너지가 소비되며, 이 페트병의 90%는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되어 다이옥신, 중금속재를 발생시키고 있다. 한편, 페트병들은 애당초 비생태적으로 계획된 공간 속에서는 제대로 분리수거 되지 않는다. 장터 뒤 남은 음식들과 썩는데 20년 걸리는 많은 것들과 발암물질 중금속재를 내뿜는 썩지 않는 많은 것들을 한데 모아놓은 비닐봉지는 학내 미화직 노동자들의 손에서 한 새벽에서야 분리 된다.

1. 학생자치행사에서 생태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생태적인 실천이란 저어새와 여성어민의 삶을 없애가면서 국제캠 퍼스를 짓고는 군데군데 녹색을 발라놓고 '발전'이나 '성장'을 얘기하는 '녹색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인류가 석유를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환경 보존'을 의미하는 것만도 아니다. 인간만의 이익을 위해 자연 파괴의 정도를 줄이거나 자연 파괴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현재 나타나는 생태 위기와 그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생태적인 실천은 자연과 인간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이 서로를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삶을 위한 모든 것이다. 이 사회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권력관계로 인해 인간에 의한 자연의 착취가 너무나 쉽게 용인되고 있다. 또 남성 백인 중산층 중심의 신자유주의 속에서 자연의 파괴로 인한 고통이 여성, 가난한 이에게 전가되고 있다. 학생자치활동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학생자치활동에서 생태적 실천을

통해 부당한 권력관계를 거부하고 생태적인 삶으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에코 MT, 쓰레기제로 도전하다!>

고등학생 시절, 대학생들의 '엠티'란 얼마나 동경의 대상이었는지! 한 때의 남녀가 함께 박스와 비닐봉지를 가득 들고 기차를 타고 숙소로 가 밤새 놀고 돌아오는 엠티는 젊음의 자유와 낭만, 우정이 가득한 아름다운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고, 여러 번의 엠티를 겪은 지금, 더 이상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밤새 함께 있어도 달리 할 일이 없기에 지겨워도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해야 하고, 끝나고 나면 방 가득한 술병과 과자 봉지, 고기 찌꺼기와 아픈 속밖에 남지 않는다. 엠티촌 숙박업소 주인들은 대학생들의 엠티 문화에 진저리를 친다. 하룻밤, 열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대학생들이 만드는 쓰레기의 양은 엄청나다. 내 몸에도, 환경에도 나쁜 먹고 마시고 버리는 엠티 문화. 엠티를 한 번 다녀 올 때마다 환경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에 잔뜩 죄를 지고 가는 느낌일 텐데, 뭔가 나에게도 자연에게도 좋은 방법이 없을까?

1. 준비하기

쓰레기제로 MT를 위해 몇 가지 준비할 것이 있다. 먼저 장을 볼 때 필요한 통(특히 방수가 되는 반찬통이 필요하다), 투명망, 방수망, 장바구니가 필요하고, 그릇과 수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숙소가 많으므로 개인식기와 개인수저, 개인컵을 가져간다. 보통은 단체로 일회용 그릇과 수저, 종이컵을 사지만 각자 하나씩만 가져오면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세 가지를 가져왔을 때는 엠티비를 어느 정도 할인해 주는 식으로 참가자들을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불편함이 싫어서 일회용품을 쓰자고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설거지를 할 때 필요한 친환경 아크릴 수

세미와 철수세미, 양푼 대야도 필요하다. 양푼 대야는 요리할 때도 유용하게 쓰인다. 휴지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걸레와 행주, 손수건은 필수이다.

- 개인 준비물(각자 미리 가져오도록 공지): 개인식기, 개인수저, 개인컵, 손수건

- 단체 준비물 : 통, 투명망, 방수망, 장바구니, 여분의 식기·수저·컵, 양푼, 환경 수세미, 철수세미, 행주, 걸레

2. 장보기

옴티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닐봉지'. 땅에 버려질 경우 썩지도 않고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물에 버려질 경우 물짐승들에게 먹혀 뱃속에서 그들을 죽이고, 환경 호르몬까지 만들어내는 비닐봉지는 자연에 해를 끼치는 쓰레기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비닐을 쓰지 않고 옴티를 갈 수 있을까? 사실은, 갈 수 있다.

비닐 없는 옴티의 비밀은 바로 이 통과 장바구니, 투명망·방수망에 있다. 비닐은 물건을 담기 위해 필요한 것, 그렇다면 비닐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물건을 다른 곳에 담으면 된다. 새거나 냄새가 나지 않나? 반찬통이란 그걸 막기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닌가. 그 면에 있어서는 비닐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비닐 없이 장을 보려면 재래시장에 가는 것이 좋다. 대형 슈퍼에는 이미 포장된 제품을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래시장에서 과일이나 야채, 김치, 고기 등을 사려고 하면 아주머니 아저씨들은 비닐부터 꺼내 든다. 이 때 순발력이 중요하다. "아니요, 비닐 쓰

지 말고 여기에 담아 주세요!" 처음에는 모두들 의아해한다. 셀 것 같다. 냄새가 날 거다, 그래도 한 번 싸고 넣어야 한다……. 그럴 땐 단호하게 "저희는 비닐을 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 그러면 아주머니 아저씨들, 매우 기특해하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비닐을 쓰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장을 보다 보면 통이 모자라기도 하고, 이것만큼은 예외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일이 항상 생긴다. 하지만 비닐을 쓸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해 버리면, 다른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익숙해진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요즘은 일반 가정에도 장바구니가 많이 보급되어 있다. 이제 비닐봉지는 돈을 주고 사야 하기도 하고, 쓰레기도 많이 나오니 일반 주부들도 장바구니를 많이 이용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할까? 장바구니 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물품들이 한 번씩 비닐에 싸여서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비닐이 왜 필요할까? 흙 묻은 감자와 흙 묻은 양파가 서로 닿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단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해 보일 뿐,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다.

가루가 떨어지거나 부스러지는 것, 물이 묻어 있는 것이라면 방수망에 넣는다. 방수망이 없다면 미리 주머니를 준비해 가면 된다. 고추처럼 작아서 흩어지는 것이라면 투명망에 넣으면 된다. 양파 주머니 등을 가져가도 대신할 수 있다. 장바구니가 모자라면 재래시장에서도 박스를 쉽게 구할 수 있다.

3. 요리하기

요즘은 엠티에서 요리를 별로 하지 않는다. 첫째는 요리할 줄 모르기 때문이고, 둘째는 요리하기 귀찮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예 요리하지 않고 대충 인스턴트 음식이나 과자를 먹거나, 요리를 좋아 하는 아이들 몇 명이 만들면 다 같이 먹는 정도이다. 하지만 나는 그건 너무 큰 손실이라고 외치고 싶다. 다 같이 하는 요리는 재미 있고, 의외로 결과물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 가끔은 스스로 감탄할 만큼 맛있는 작품이 나오기도 한다. 서너 명이 둘러앉아서 야채를 썰고 물을 끓이고 밥을 짓다 보면 과자를 먹는 것보다 훨씬 친해 진다. 게다가 대학생이 요리를 배울 기회가 평소 얼마나 있겠는 가? 엠티는 정말 좋은 기회다. 과자를 먹지 않고 요리를 해서 먹 으면, 더 즐겁고 더 몸에 좋고 쓰레기도 나오지 않는다.

비닐 이야기를 했지만, 쓰레기 중에서 가장 지구에 해를 끼치는 쓰레기는 바로 음식물 쓰레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일단 음식물 쓰레기는 그 양이 엄청나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썩 으면서 땅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동식물을 죽인다. 음식물 쓰레기는 타지도 않는다. 게다가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은 쓰레기가 아니다. 우리 입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은 사실 같 은 것이다. 먹으면 음식인데 버렸기 때문에 쓰레기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한 마디로 쓰레기도 아닌 것을 쓰레기로 만들어서 지구에 엄청난 누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다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양을 잘 맞추고, 약간 부족한 듯 하게 요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요리과정에서 음식물찌꺼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요리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 물찌꺼기에는 과일껍질, 야채 꼭지, 야채 뿌리, 감자고구마 껍질,

썩은 부분 등이 있다. 이 중 정말로 '먹을 수 없어서' 버리는 것이 얼마나 될까? 사실은 없다.

음식물에 플라스틱 심이나 철사가 들어 있다면 모를까, 자연적인 음식물이라면 먹을 수 없는 부분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썩은 것까지 먹는 건 맛도 기분도 나쁘고 건강에도 나쁘니까, 그것까지 먹지는 않는다. 하지만 과일 껍질은? 과일의 영양소는 사실 껍질 에 다 들어 있다. 과육은 대부분 설탕물일 뿐이다. 껍질에 농약이 묻어 있지 않나? 껍질에는 농약 등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성분 도 들어 있다. 먹는 것이 먹지 않는 것보다 이익이다. 나에게도, 자연에게도, 고구마 감자도 마찬가지이다.

뿌리나 꼭지는? 나는 묻고 싶다. 대체 뿌리나 꼭지를 먹으면 안 된다는 법을 누가 만들었지? 왜 먹으면 안 되지? 라고. 몸통이나 꼭지나 다 같은 야채이다. 꼭지도 먹어도 된다. 단지 좀 딱딱하니 까, 잘 다져서 전이나 국에 넣으면 된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 지 아무도 모르고 잘 먹는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왜 그 령게 하면 안 되는가? 엄청난 수고를 들이는 것도 아니고, 몸에 나쁜 걸 억지로 먹이는 것도 아니다. 단지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달라서 거부감이 들 뿐이다. 발상을 전환하면 버려야 할 것을 버 리지 않아도 된다. 버리는 것 보다는 안 버리는 게 좋으니, 안 버 려도 될 것은 버리지 않는 것뿐이다.

아,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밥을 할 때는 쌀뜨물을 버리지 말고 모 아 두어야 한다. 야채를 씻거나 설거지를 할 때 요긴하게 쓰인다.

4. 밥 먹기

간단하다. 다 먹으면 된다. 다 먹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대체 왜 밥이 쓰레기가 되는 걸까? 지구 저편에서는 밥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있다. 7초마다 한 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한다. 내가 엠티에서 밥을 먹고 있는 10분 동안, 80여명이 굶어 죽는다. 그걸 알고 나면, 밥은 남지 않는다. 남길 수가 없다.

밥을 먹을 때는 이 음식이 내 앞에 이르기까지 어떤 수고가 들어갔는지를 생각해 보자. 소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완성품만을 본다. 하지만 생태적 실천은 그 시작과 끝, 그리고 다시 시작까지 순환의 구조를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쓰레기를 쓰레기로 보지 말고,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처리되고 나면 어떻게 재탄생할 것인지를 보는 것이 생태적 고민의 시작이다. 음식물도 마찬가지이다. 내 앞에 있는 음식물은 내가 돈을 주고 사 온 것이긴 하지만, 내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준 것만을 생각하면 억울해지고 공격적이 되지만, 받은 것에 집중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행복해진다. 밥을 먹을 때는 행복한 마음으로 먹어야 한다. 수많은 사람과 다른 생명들의 손길이 더해져 만들어진 음식이 내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먹으면, 몸에도 좋고 기분도 좋다.

그런데 그냥 먹어서는 '다' 먹는다는 것이 보기에만 그럴 뿐, 남은 음식물은 언제나 그릇에 붙어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물로 그릇을 씻어서 그 물까지 마신다. 얼굴이 찌푸려질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더러운 것을 먹는 것도, 몸에 나쁜 것을 먹는 것도 아니다. 역시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뜨거운 물을 그릇에 부어 김치 조각이나 비섯으로 닦아서 마시면, 그릇은 설거지를 한 것처럼 깨끗해진다. 그래서 세제를 많이 쓸 필요도, 물을 오염시킬 필요도 없어진다. 닦아 먹는 불편함은 깨끗해진 그릇을 보는 기쁨에 비하

면 별 것이 아니다.

5. 설거지하기

다 먹었기 때문에, 특히 닦아 먹었을 때는 더더욱 설거지가 간단하다. 물 세 대야만 떠 놓으면 된다. 첫 번째 대야에는 쌀뜨물을,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야에는 맑은 물을 담는다. 쌀뜨물에 그릇을 넣고 기름을 닦아내는 환경 수세미로 잘 닦는다. 그리고 뒤의 대야에 한 번씩 두 번 행군다. 행주로 물기를 닦아내고 나면 아주 깨끗해진다.

6. 생활하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휴지 사용이다. 엠티에서는 술을 쏟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러면 휴지 한 통을 다 풀다시피 해서 닦는다. 걸레 하나만 있으면 해결될 일이다. 손을 닦거나 할 때는 손수건을 이용한다. 휴지를 만들기 위해 숲의 나무가 수도 없이 베이고 있다. 나무가 없어지면 지구도 죽는다. 환경 실천은 별 생각 없이 행하던 것을 다시 돌아보고,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매 순간 습관과의 싸움이 필요하다.

화장실에서의 휴지 사용은 조금 어려운 문제이다. 사실 화장실에서 휴지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이다. 인도에서는 휴지 대신 물을 사용한다. 물을 사용하면 쓰레기도 남지 않고, 더 깨끗하다. 하지만 휴지 사용 습관 때문에 생긴 손으로 닦는 건 '더럽다'는 생각이 섰듯 대안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한 번 그냥 해보면, 더 좋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장 불 때는 그렇다 쳐도, 갈 때와 올 때 빈 통들을 들고 가야 하는 것이, 걸레를 빨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버리는 것보다 불편하지 않나? 물론 불편하다. 일회용품은 편리를 위해 탄생한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용하는 것보다 불편하다. 하지만 환경 실천이란, 당장의 편리나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나 중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편리를 잃은 대신 기쁨과 자존감을 얻는 것이다.

PS. 이 모든 것을 지켜야만 생태적으로 올바르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생태적 고민을 가지고 지켜나가고자 하는 마음이다. 위의 여러 가지 실천 중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고민하고 실천해나가는 것을 시작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의미있다.



<채식 레시피>

▶ 야채흑미죽 (4인분 기준)

<재료> 쌀 2컵(백쌀8: 흑미2) / 표고 4개, 죽염, 참기름, 간장 약간 / 당근, 오이 1/2개 (고명용)

<조리>

1. 밥을 미리 지어놓는다.
2. 표고버섯은 데쳐 물기 짜고 갓만 채썰어 죽염 약간, 참기름 약간, 간장 약간에 밑간한다.
3. 당근 채썰어 잘게 다져 볶는다. 오이는 채썰어 잘게 썬다.
4. 물 4컵 정도를 밥과 넣고 센불에 푹푹 끓이며 계속 저어준다. (계속 저어야 안 눌리붙음)
5. 물이 줄어들면 물 4컵 정도 넣고 표고 넣고 저으며 약중불로 푹푹 끓인다. (물이 부족하면 보충해 넣으며 끓인다)
6. 죽이 완성되면 고명용 야채를 섞어준다.
7. 상에 죽염 담은 종지들을 내서 먹기 직전에 입맛에 맞게 죽염 넣어 먹는다. (죽염을 일찍 미리 넣어버리면 죽이 삭아버림)

▶ 감자국 (4인분 기준)

<재료> 감자 3개, 다시마5*5 1개, 물16컵, 소금, 잣잎

<조리>

1. 감자를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썰기해 국냄비에 다시마와 물과 함께 넣고 10분 정도 끓인다.

2. 소금으로 간하고 썰었을 채썰어 넣는다.

▶ 도토리묵 (4인분 기준)

<재료> 도토리묵 1, 상추4, 오이1

양념장 : 간장 2술, 설탕1작은술, 식초 1술, 참기름 1/2술, 깨소금 적당량

<조리>

1. 도토리묵은 작은 사각형으로 잘라준다
2. 상추 먹기 좋게 썰고 오이는 길게 반으로 썰어 어슷 썰어준다 (반달어슷)
3. 양념장 만들어 뿌려먹는다.

▶ 비빔국수 (4인분 기준)

<재료> 국수4줌, 오이1.5개, 상추

양념-고추장 3큰술, 참기름1/2작은술, 식초 1작은술, 설탕 1큰술, 통깨, 원하면 물엿도.^^

<조리>

1. 국수는 소금 살짝 넣어 삶아 찬물에 헹궈 먹기 좋게 한줌씩 들들 말고.
2. 오이 채썰고 상추 적절히 썰고 양념에 버무려 통깨 뿌려먹음.

▶ 감자, 고구마 찌고, 고구마는 김치랑 먹어야 제맛 ㅎㅎ

▶ 우엉버섯밥 (4인분 기준)

<재료> 우엉 한뼘(20-25센티?), 표고5개, 참기름, 쌀 2컵, 식초 몇방울

<조리>

1. 우엉은 겹질 꺾어 편으로 썰어(어슷어슷) 식초방울 떨어뜨린 물에 담가 갈변 방지.
2. 표고버섯은 너무 얇지 않게(씹는 맛이 있게) 채썬다.
3. 참기름에 우엉과 표고를 볶고
4. 우엉, 표고에 씻어불린 쌀과 물 넣고 밥한다.

▶ 느타리미역국 (4인분 기준)

<재료> 느타리 1줌, 불린미역1줌, 국간장, 소금, 참기름

<조리>

1. 느타리는 데쳐서 찬물에 식혀 손으로 잘게 찢는다.
2. 냄비에 넣고 느타리를 참기름, 소금에 무친 후에
3. 미역 넣고 물 넣고 국간장으로 간하고 끓이면서 나중에 간 더 보고 소금으로 간한다.

▶ 가지무침 (4인분 기준)

<재료> 가지 1개, 양념장-간장 1술, 고춧가루 약간, 식초 약간, 참기름 약간, 통깨 약간

<조리>

1. 가지는 젓가락 모양으로 길쭉하게 채썰어서(김밥용 오이처럼)

물에 데친다.(찌도 좋음)

2. 양념장에 버무려 통째 술술 뿌려 완성

▶ 감자채 버섯 샐러드 (4인분 기준)

<재료> 감자 4개, 느타리 1줌, 팽이버섯 2봉, 브로콜리 1/2송이, 당근 1/2개

소스 : 포도씨오일1컵, 참깨3큰술, 식초 4큰술, 설탕1큰술, 소금 1/2작은술, 후춧가루1큰술

<조리>

1. 감자는 채썰어 물에 담가두었다가 아삭하게 데치고(감자는 감변이 빨리 일어나므로 다 썰 동안 물에 담가둠)
2. 느타리,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먹기 좋게 느타리 찢고 브로콜리 찢고
3. 팽이버섯, 당근은 팽이 밑동 자르고 당근 채썰어 삶아 먹음
4. 소스 섞어먹음



<플랑뎃자리 만드는 법!>

오지랖 넓은 고민 하나,

백양로를 가득 채운 동아리 홍보 플랑, 회사 채용 공고 플랑들, 모집기간과 행사기간이 끝나면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어디로 가서 숨을 쉬고 있을까? 이 녀석들로 인해 다른 녀석들이 숨을 못 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오천원의 일회용품, 다시 쓸 수는 없을까? 다시 살아 숨쉬게 할 수 있을까?

오지랖 넓은 고민 두울,

대동제 주점 당일, '와 폭신평신했던 스티로폼이다! 선배 주점 끝나면 이것 어디로 가요?' '버리지.' 두둥... 뭐라고 환경에 노출된 화학물질이 생체 내에서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한다고 해서 붙여진 일명 내분비장애물질(Endocrine Disruptors: EDs)인 환경호르몬 덩어리인 스티로폼을 그냥 버린다고!!!!!! 술 마셔서 몸 상하고, 배제하고 폭력적인 술문화로 마음이 상한 대동제, 이제 나의 건강, 우리의 생태마저 상하게 하는 것인가?

이런 오지랖 넓은 고민에서 나온 대안이 '플랑뎃자리'입니다.

우선 준비물은

각종 플랑 (사이즈 상관없어요!), 재활용통에 가득 쌓인 박스들, 실, 바늘, 청테이프,

각종 이야깃거리, 그리고 마음맞는 사람들과 신나는 음악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모였으면 플랑들을 이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요!

ex) 초록 리본을 단 주점은 생태주점입니다!

- 초록색 리본을 주점입구에 달아서 생태주점임을 알려요!

